법화경 유포를 부촉하다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㉝ 촉루품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좌에서 일어나 큰 신통력을 나타내어 오른손으로 한량없는 보살마하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지겁에 이 얻기 어려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법을 닦고 익혔느니라. 그것을 이제 그대들에게 부촉하노니,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이 법을 받아 지녀 유포하여 널리 퍼지게 하라. 그리고 이 법을 설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잘 듣고 알게 해 주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세 번을 거듭 보살마하살들의 머리 쓰다듬으시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여래는 큰 자비를 지니어 욕심부리는 일이 없으며 또한 두려운 것이 없어서, 능히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혜와 여래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를 주기 때문이니라.

여래는 곧 일체중생의 큰 시주이니 그대들도 마땅히 여래의 법을 따라 배워서 인색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오는 세상에 선남자, 선여인이 여래의 지혜를 믿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이 〈법화경〉을 설해 듣고 알게 해야 할 것이니 그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믿지 않으면 마땅히 여래의 또 다른 깊고 묘한 법 가운데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롭게 해주고 기쁘게 해 주어야 하느니라. 그대들이 만약 이렇게 한다면 모든 부처님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되느니라." 그때 여러 보살마하살들이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큰 기쁨이 온몸에 넘쳐 더욱 공경스럽게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여 합장을 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함께 아뢰었다.

"세존의 분부대로 받들어 행하오리다. 그러하오니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모든 보살마하살들이 이렇게 세 번이나 함께 소리를 내어 아뢰었다.

그때 석가모니부처님이 시방에서 오신 여러 분신(分身)부처님들을 각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려 하여 이렇게 이르시었다. "여러 부처님들께서는 각기 안주하시던 곳으로 돌아가시고, 다보부처님은 아직 그대로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시방에서 오신 보배나무 밑에 앉아 계시던 한량없는 분신(分身)부처님들과 다보여래와 상행(上行)보살 등 끝없는 아승지 보살들과 사리불을 비롯한 성문과 사부대중 그리고 모든 세간의 천신 · 인간 ·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크게 기뻐하였다.

〈법화경〉은 말세용 경전의 역할을 하는 경이다. 마치 〈지장십륜경〉처럼 말세의 사정을 감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또 〈법화경〉은 〈호국삼부경〉에 들어가듯이 〈호국경〉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는 법을 들을 중생들의 사정을 생각하는 정도가 그만큼 깊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법화경〉의 대비심이 지극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촉루품'에 설해져 있는 위의 내용은 〈법화경〉의 유포를 보살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다. 이 대목에서는 〈법화경〉을 아뇩다라삼막삼보리법이라 하였다. 무상정각이라 번역되는 이 말은 불법의 핵심 진리 그 자체를 일컫는 말이다. 이를 널리 유통시켜 모든 중생들이 듣고 잘 알게 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를 한다. '여래의 지혜를 믿는다면 〈법화경〉을 설해 듣고 알게 하라'는 유훈이 세 번이나 거듭 설해진 것이다. 이 유훈을 받는 것이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이라 하였다. 또 〈법화경〉이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혜와 여래의 지혜 그리고 자연의 지혜를 준다고 하였다. 모두 부처님의 지혜를 달리 부르는 말로 일체지, 일체종지 무사지(無師智) 등 지혜의 성격을 달리 나타내는 말들이다.

다보여래는 〈법화경〉을 증명하는 부처님으로 열반하신 후 전신사리가 되어 〈법화경〉을 설할 때마다 땅에서 솟아 나와 칠보탑이 되어 〈법화경〉이 진실한 것임을 증명해 준다고 한다. 본래는 동방 보정세계 부처님으로 법화회상에 꼭 등장하는 부처님이다. 시방에서 온 분신부처님은 본국으로 돌아가시고 다보여래만 남아 계시라 부탁하는 말씀은 법화법문이 안끝났으니 더 증명해 주시라는 뜻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점찰 통해 자신 악업 참회 유도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㉝ 보살계와 점찰참법(占察懺法)

동아시아불교에 대한 수많은 편견은 아마도 순수한 형태의 불교에 대한 추구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미국의 불교학자인 베르나르 포르(Bernard Faure)는 '미신적 요소가 없는 순수한 불교'에 대한 믿음이 편향된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아울러 불교는 시대, 장소, 전파된 문화권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불교는 오랜 세월 동안 동아시아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변화한 형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은 동아시아의 문화를 흡수한 경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전은 천축삼장(天竺三藏) 보리등(菩提燈)의 한역으로 되어 있지만, 그에게는 전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전을 한역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이 경전은 여러 경전목록에서 위경(僞經)으로 분류되었지만, 당나라 때에 진경(眞經)으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경전의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6세기 말에 중국에서 찬술된 경전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경전에서는 견정신(堅淨身) 보살의 청문(請問)에 대해, 세존이 지장(地藏) 보살에게 말세의 중생을 위한 방편을 설하도록 한다. 이 경전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다소 이질적이다. 상권에서는 숙세(宿世)의 선악업인(善惡業因)과 현세의 길흉의 과보(果報)를 점치는 법을 설하며, 하권에서는 대승불교의 실천으로서의 일실경계(一實境界), 여래장(如來藏)의 이론과 유식관(唯識觀) 및 진여관(眞如觀)을 설한다.

특히 상권에 소개된 목륜상법(木輪相法)은 당시 중국의 민간에서 성행하던 점찰법(占察法)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점찰하는 도구인 목륜(木輪)을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목륜은 나무를 새끼손가락 크기 정도로 깎고서 중심부를 4면체로 다듬어놓은 후에 양 끝을 비스듬히 깎아서 만든다. 그런 다음에 목륜으로 점찰하는 3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10개의 목륜으로 숙세의 선악업의 차별을 점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3개의 목륜으로 숙세의 선악업의 오래되고 가까움, 강하고 약함, 크고 작음을 점치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6개의 목륜으로 삼세에서 받는 과보의 차별을 점치는 것이다.

그런데 목륜으로 선악과 과보를 점찰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다. 첫 번째 방법으로 10선과 10악을 점찰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방법으로 신구의(身口意)의 3업을 점찰할 수 있으며, 세 번째 방법으로 삼세에서 받는 189가지 과보를 알 수 있다. 앞의 2가지 방법으로 점찰한다면 10선과 3업에서 전부 선업이 나올 확률은 낮으며, 10악 가운데 하나가 나오거나 3업 가운데 악업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런 까닭에 자신의 선악과 과보를 점찰한 사람들은 자신의 악업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참회해야 한다. 하루에 6번 모든 부처님과 성현,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예배한 후에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7일에서 1000일 동안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한다. 진실한 참회를 통해 선상(善相)을 얻은 사람들만이 보살계를 받을 수 있으며, 비록 훌륭한 계사(戒師)가 없더라도 모든 불보살을 증명 법사로 삼아 스스로 10중계(重戒)와 삼취정계(三聚淨戒)를 차례로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전에서는 〈범망경(梵網經)〉의 10중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유가계의 삼취정계를 섭율의계(攝律儀戒) · 섭선법계(攝善法戒) · 섭화중생계(攝化衆生戒)로 조금 변형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자서수계(自誓受戒)에 의한 출가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 전제조건은 지극한 마음으로 선한 윤상(輪相)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상권의 점찰법은 점찰참법(占察懺法), 즉 점찰의 결과를 받아들여 자신의 악업을 참회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⑨ 이 생서 꼭 해야 할 천명(天命)

지견으로 바른길 인도하는 부처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신 이유

불자 여러분! 불교를 신앙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교신앙의 참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임시로 화합된 오온가화합(五蘊假和合) 덩어리를 '나'라고 집착하고, 더구나 이 몸뚱이와 인연된 존재들에게 애착을 일으키며 그에 의한 갈애(渴愛)로 복락을 추구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세의 복락 기원도 불교의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참된 목적, 즉 궁극적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의 복락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묘법연화경〉 '방편품 제2'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맑고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세상에 나오시어 나타나시며,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이시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세상에 나오시어 나타나시며,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세상에 나오시어 나타나시며, 중생에게 부처님 지견의 길에 들어가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세상에 나오시어 나타나신다."고 분명히 이 세상에 출현하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중생의 가치관을[衆生知見]을 버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서 부처님의 지견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알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왜 필요한가?

부처님의 지견이 왜 필요하냐면 중생이 세상을 보는 것과 부처님이 세상을 보는 지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명에 가려진 중생의 눈으로써는 자기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의 지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들이 그토록 탐착하는 이 육체는 나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현상세계에 나타난 나와 일체 세계는 모두가 찰나에 생성소멸하는 연기적 존재입니다.

일체가 무아이고 무상이기 때문에 집착하고 애착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명에 가려진 우리들은 안타깝게도 찰나에 생성소멸하는 허깨비 같은 현상들을 실재한다고 믿고 집착하고 애착하면서 생사윤회의 원인들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모든 환영과 망상을 깨뜨리고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매 순간 환영과 망상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부처님같이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고타마 싯다르타의 스승

불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무상정등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출가 당시 깨달음을 위해 첫 번째 스승인 밧가와를 만나 고행을 통한 무아와 생각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고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승인 알라라 칼라마를 만나서 선정을 닦는 수행을 통해 절대의 경지를 체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승인 웃타카 라마풋타를 만나 자신이 이룬 경지마저 놓음으로써 얻어지는 일체무애한 해탈의 법을 터득하여 선정의 최고의 경지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세 분의 스승을 통해 얻은 이 모든 수행의 결과들은 참다운 깨달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스승 곁을 떠나 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함이 없는 경지에서 무상정등정각을 깨달아서 인천(人天)의 스승인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일일시호일

13년 한국 생활에
남은 건 암덩이와 빚더미

봉제공장서 근무한구룽시타씨 부부…사기당해 건물서 쫓겨나
직장암 수술 앞둬…검사비만 500만원 병원비는 알 수 없어 암담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